

6.10만세운동 제98주년 기념 학술회의

김단야와 그의 시대

김단야와 그의 시대

인사말	이동섭 소전재단 이사장	자료집 페이지
축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주제 발표	고려공산청년회와 김단야 발표 :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토론 : 김국화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4
	6.10만세운동과 김단야 발표 : 박종린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토론 : 전명혁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교수	23
	12월테제와 김단야 발표 : 임경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최규진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교수	31
	스탈린 숙청과 김단야 발표 : 윤상원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 : 황동하 전북대학교 고려인연구센터 교수	39
종합 토론	사회 : 박한용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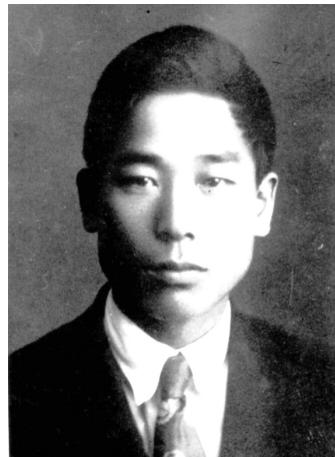
주제발표

고려공산청년회와 김단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1. 들어가며

- 해방 이후 오랫동안 김단야와 관련된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6.10만세운동 등이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에서 공백 상태에 놓여 있거나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음
- 노무현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은 2005년에 뒤늦게 독립 유공자(건국훈장 독립장)로 인정하면서 김단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한 축을 지탱했던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활동은 조국광복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국가보훈처 보도자료)



김단야

- 아직도 김단야 연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
평전의 홍수 시대에도 김단야를 다룬 것은 하나도 없으며 김단야를 주제로 한 석사 학위 논문도 박사 학위 논문도 단 한 편이 없음
논문 검색 사이트인 디비피아에서 김단야라는 제목으로 검색되는 글은 6편. 6편의 글이 실린 매체는 『역사비평』(2편), 『내일을 여는 역사』(2편), 『진보평론』(현 『뉴 래디컬 리뷰』: 1편), 『한국근대문학연구』(1편)
김단야 연구가 부진한 이유의 하나는 자료의 부족. 특히 왜 혁명운동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초기 행적 관련 자료가 매우 희소
그러다 보니 김단야의 행적과 관련해 잘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온라인에 범람. 특히 초기 행적

- 이 발표는 김단야의 초기 행적 곧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한 이후 1925년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하고 그 해 말 제1차 조선공산당 탄압 사건으로 상하이에 망명할 때까지 활동을 중심으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1996)

(3·1운동 참가자) 경북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 출신이다. 1906년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했다. 1908년 4월 고향의 개진학교에 입학했다. 1909년 4월 진명학교로 옮겼다. 1년간 수학한 뒤 1910년 3월 퇴교하고, 영진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 수학한 뒤 졸업했다. 1915년 대구에서 기독교계 학교인 **계성학교 고등보통학과에 입학했다. 다음해 11월 일제의 조선지배를 정당화하는 미국인 교장에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1917년 1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정칙영어학교에서 6개월간 수학했다. 9월 서울로 돌아와 **배재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초 서울의 각 중등학교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학생 비밀결사 결성에 참여했다. 3·1운동에 참가하고, 지하 유인물 『반도의 목탁』을 발행했다. 그후 고향에서 만세시위를 주동하고,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4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태형 90도를 선고받았다. 출옥 후 비밀결사 적성단(赤星團)에 가입하여 재만주 독립군 사관학교 입교생을 징모하고, 운동자금을 모금했다.

(고려공청 중앙위원) 1919년 12월 상해로 망명했다. 1920년 2월 절강성 항주의 배정학교에 입학하여 영어·중국어를 공부했다. 1921년 3월 상해 고려공산청년단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기관지 『벌거숭이』 편집인으로 일했다. 8월 재상해 고려공청 책임비서로 선임되었다. 같은 달 화동학생연합회 서기가 되었다. 10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지부에 입당했다. 같은 달 **상해 상과(商科)대학교에 입학했다.** 11월 고려공청 대표로 선임되어 극동민족대회, 극동청년대회에 출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출발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와 극동청년대회에 참석했다. 3월 상해로 돌아와 국제공청의 지도하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을 결성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4월 고려공청 중앙총국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다가 신의주에서 체포되었다. 신의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공 해외부 위원) 1924년 1월 출옥했다. 출옥후 **동아일보사**·조선일보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신흥청년동맹, 한양청년연맹, 화요회에 참여했다. 4월 다시 고려공청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같은 달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8월 신흥청년사 설립에 참가하고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9월 조선일보 기자로 취직했다. 1925년 1월 고려공청 중앙총국의 지시로 상해에 파견되어 **코민테른 대표자와 회견했다.** 같은 달 조선일보에 「레닌회견인상기」를 게재했다.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4월 고려공산청년회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연락부 책임자로서 코민테른, 국제공청과의 연락을 담당했다. 5월 고려공청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참가했다. 9월 조선일보사에서 해직되었다.** 12월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을 피하여 상해로 망명했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6권(1996)

1908년부터 김천의 개진학교·진명학교·영진학교를 거쳐 1915년 기독교계 학교인 대구의 계성 학교에 진학했으나 1916년 11월 일제의 조선지배를 정당시하는 미국인 교장에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주동하다가 퇴학당하였다. 1917년 일본 세이소쿠 영어학교에서 6개월간 배운 뒤 돌아와 배재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는 한편 지하유인물 '반도의 묵탁'을 발행하여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뒤, 고향인 김천 개령면에서 은창서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았다.

3·1운동 후인 1919년 8월 경남 거창군 거창면 오형선의 집에서 오형선 이덕생·고운서·주남고 등과 함께 비밀결사 적성단(赤星團)을 조직하고 군자금모집 및 의용병 모집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은 만주에서 활동하는 군정서에 독립군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김태연은 신도출이 제공한 군자금을 가지고 주남수·이사술·이성년·백기주 등 4명의 의용병을 선발하여 만주 군정서로 파견하였다.

만주에서 돌아온 그는 동년 12월 다시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1920년 2월 저장성 항저우의 배정학교에 입학하여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는 한편 상해의 사회주의연구소에 출입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해갔다. 1921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지부가 조직될 때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을 맡고, 동년 말 고려공산당원이 되었다. 1922년 1월에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한국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동년 4월 김만겸·여운형·안병찬 등이 조직한 고려공산당에 가입했으며, 박헌영·임원근 등과 함께 사회주의운동의 국내 활동을 목적으로 귀국했다. 이들은 태고양행의 기선 북해환을 타고 안동에 도착하여 국내 잠입 기회를 엿보던 중 4월 3일 김태연이 먼저 신의주에 잠입했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1924년 1월 19일 출옥한 그는 동아일보사·조선일보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박헌영·임원근 등과 함께 사회주의 단체인 세칭 화요파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다. 1924년 신흥청년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약하던 그는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이 결성될 때 핵심인물로 참가했다. 이때 그는 고려공산청년회의 강령 규약을 작성했고, 전형위원 및 집행위원, 연락부 책임을 맡으며 주로 코민테른, 해외 조직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대외 창구의 역할을 맡았다.

1925년 12월 조선공산당 조직이 발각되자, 김찬 등과 함께 상해로 망명해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를 설치하고 국제공산당과 국내 공산당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코민테른의 동양혁명후원회의 후원자금, 유학생의 각출금 등 다양한 경로로 모집된 자금을 국내의 고려공산청년회에 전달하면서 국내 사회주의운동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 제3권(2020)

1900년 1월 16일 경상북도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의 중농이었던 김종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1899년 1월 16일, 1901년 1월 16일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본관은 김녕이다. 이명으로 김단야·김규·김추성·김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김단야로 잘 알려져 있다.

1906년 서당에서 2년간 한문을 수학하였다. 1908년부터 1914년까지 개진학교, 진명학교, 계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던 중, 1916년 미국인 선교사인 학교 교장에 반대해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퇴학당하였다.

1917년 1월 일본 도쿄로 건너가 세이소쿠(正則) 영어학원에 입학했지만, 학자금 부족으로 그 해 9월 국내로 돌아와 배재고등보통학교에 다녔다.

1919년 『반도의 목탁』이라는 비합법간행물을 발행하는 학생 비밀결사에 가담하고,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신문 등을 통해 국내 각지의 만세 소식을 접하고 고향인 경북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으로 내려와서 1919년 3월 24일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치안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출옥 후 서울로 올라와 비밀결사 '개척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개척단은 만주의 독립군 사관학교에 보낼 학생을 모집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하였다. 개척단의 존재가 일제 경찰에 탐지되자, 1919년 12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1920년 쑨원(孫文)의 광둥정부가 설립한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광둥으로 향하였지만, 입학에 실패한 후 상하이로 돌아왔다.

1921년 3월 상하이에서 고려공산청년회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기관지 『별거숭이』 편집인을 맡았다. 그 해 9월 상하이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로 선임되었고, 10월에는 고려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21년 11월 고려공산청년회 대표로 선임되어 이듬해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극동민족대회와 극동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르쿠츠크로 떠났다.

1922년 1월 소비에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와 원동청년대회에 고려공산청년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그 해 3월에 상하이로 돌아온 후, 국제공산청년회의 지도를 받아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을 결성하고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2년 4월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을 상하이에서 국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던 중 신의주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공산주의 선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4년 1월에 풀려났다.

출옥 후, 1924년 3월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이 되어 **선전부를 맡았다**. 도쿄에서 발행되던 『신흥청년』 편집자가 되었고,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였다.

1925년 1월 상하이로 다시 파견된 후, 2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 해 4월 비밀리에 열린 고려공산청년회 창립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어 연락부 책임자로 코민테른, 국제공산청년회와의 연락 임무를 맡았다. 1925년 12월 신의주에서 발생한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 사건'을 피해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2. 민족해방운동에의 첫 걸음

앞의 세 책에 서술된 김단야의 초기 행적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 출생 연도: 1899년?(『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1900년?(『독립유공자 공훈록』,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 김단야 본인이 작성한 두 가지 자료(1921년 극동민족대회에 제출한 조사표와 1937년에 작성한 자전)에 따르면 1901년 1월 16일에 출생
- 김천 개령면의 개진학교(1908년 입학), 진명학교(1909년 입학), 영진학교(1919년 입학)를 거쳐 중등 교육 기관인 대구 계성학교에 입학했고 나중에는 서울의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입학: 대체로 사실과 부합
 - － 그렇다면 왜 계성학교 입학 전에 세 군데의 초등 교육 기관을 전전했을까?
 - － 처음에 다닌 개진학교는 개령군수의 주도로 1908년에 설립되었다가(인가는 1909년) 강제병합 이후인 1912년 4월에 4년제 개령공립보통학교로 승격
 - － 두 번째 학교인 진명학교(황금동교회 부설)와 세 번째 학교인 영진학교는 모두 개신교(장로교) 교육 기관. 조부와 부친이 모두 개신교 신자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 특히 영진학교는 조부가 만든 학교이고 1915년에 문을 여는 개령교회의 모체
 - － 대구의 유일한 개신교계 중등 교육 기관인 계성학교에 입학하고 학자금을 조부가 지원한 것, 그리고 계성학교를 중퇴한 뒤 일본의 세이소쿠영어학교를 거쳐 서울의 감리교 계통 배재고등보통학교(191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을 받아들이면서 1916년에 배재학당을 고등보통학교로 변경. 당시 서울의 중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인가받은 중등 학교)에 입학한 것도 개신교 집안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
 - － 배재고등보통학교 입학이 상급 학교에의 진학을 위한 김단야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집안의 권유 때문이었는지는 확인 불가능
 - － 중등 학교에 다닐 때까지의 김단야는 개신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확

인. 1920년대 중반 김단야가 반기독교 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



현재의 개령초등학교(옛 개진학교)



현재의 개령교회

- 1916년 계성학교 맹휴 주도과 자퇴

- 1916년 말에 일어난 계성학교 맹휴를 주도하면서 제국주의와 개신교를 반대하는 의식 형성
- 앞에서 소개한 세 책에는 모두 계성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적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학교로부터 1년 정학을 당한 뒤 자퇴. 함께 1년 정학을 당한 3학년 동기생 9명도 대부분 자퇴
- 1916년 계성학교 맹휴는 일본인 교사가 조선인 학생(김단야와 동기인 3학년)을 모독하고 구타(?)한 데서 발단.
- 계성학교에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병합 직후부터 거의 의무적으로 일본인 교사가 배치되었는데 1916년 2학기에 새로 부임한 일본인 교사(內藤佐一: 일본어 담당, 개신교 신자)가 “국가 및 황실에 대한 존엄과 봉공”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수주의 성향을 드러내는 데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쌓인 상태
- 1916년 11월 학교 안의 문학회 행사에서 內藤佐一과 3학년 학생(들) 사이에 충돌 발생. 계성학교는 일본인 교사의 사직과 충돌 당사자인 학생의 3주 정학을 결정. 여기에 같은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처사에 반발하는 맹휴와 시위 운동을 전개
- “1915년 3월 나는 대구시 소재 **미국인 선교사들의 수중에 있던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1916년 12월 나는 학생 동맹휴업 조직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학교에서 **정학당했다**. 그 동맹휴업은 **처음엔 학생들을 자주 구타한 일본인 교사에 맞선 것이었고, 그 뒤에는 지역 당국의 위협 하에 구타당한 학생을 학교에서 내쫓는 식으로**

비겁하게 일본인 교사에게 유리하게 갈등을 해결한 학교장(미국인 목사)에 맞선 것이었다”(자전)

- 1937년에 쓴 자전에 따르면 계성학교 맹휴는 두 가지 성격. 하나는 일본인 교사에게 맞선 것. 다른 하나는 일제 당국의 눈치를 본 학교장(미국인 선교사)에 맞선 것.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 형성의 단초?



계성학교 교사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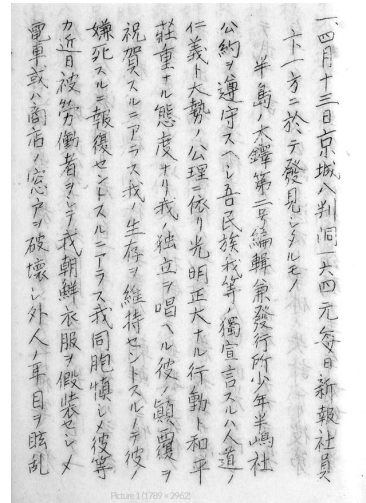
(왼쪽)
계성학교 첫 교사인
아담스관의 옛모습
(오른쪽)
아담스관의 현재 모습

● 3.1운동에 참여

- 배재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3.1운동을 앞두고 서울의 중등 학교 비밀 결사에 관여
- 2.8 독립선언서를 필사해 배포하는 한편 3.1운동에서 쓰인 독립선언서를 영국 영사와 프랑스 선교사에게 전달
- “나는 도쿄 조선인 유학생들의 선언문 사본을 입수하여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서 많은 복본을 만든 후 그것들을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경성에 있는 모든 고등보통학교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하 학생위원회의 조직자로 활동했다. 이 위원회는 3월 봉기를 준비하는 센터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위에 학생 대중을 동원하고 경성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위원회 멤버들은 자기들끼리 역할을 분담하여 선언서를 외국 영사관과 선교단에 전달했고, 나도 그것을

영국 영사 및 프랑스 선교사에게 직접 전해주었다”(자전)

- 참고: 박헌영의 3.1운동 관련 회고 “1919년이 되었죠. 나(=박헌영)는 전 인민의 거대한 항거에 참여하였습니다“(해방 후 서울 주재 소련 영사관 직원이던 샤브시나와의 대담) “전단을 쓰고 돌리는 일”(샤브시나와 만난 박헌영 옛 동지의 발언)
- 김단야와 박헌영의 접점?
- 서울에서의 첫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직후 지하 유인물 발간에 참여하는 한편 고향인 김천으로 돌아가 3월 24일 개령면 만세시위를 주도
- “3월1일 후에 나는 학교 동무들과 함께 ‘반도의 묵탁’이라는 이름의 지하 인쇄물을 만들었다. 3월 중순에 고향 쪽으로 내려가 시위를 두 곳에서 성공적으로 조직했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징역 3개월 대신에 태형 90대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가 판사의 말로는 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3일에 걸쳐 매 90대를 맞고 난 후 석방되었다.”(자전)



반도의 묵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대정8년 형제94호): 경상북도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 학생 김태연 20세 보안법 위반 태 90도

3. 해외 망명과 상하이에서의 고려공산청년회 활동

- 최초의 해외 망명

- 4월 15일 태90도를 인도받고 태형이 집행된 이후 해외 망명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1919년 12월 무렵 상하이행
- 최초의 해외 망명지는 상하이가 아니라 만주?
- 비밀결사 '개척단'에 가입. 만주의 독립군 사관학교에 보낼 학생을 모집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동
- 일제 정보문서에 따르면 경상북도 김천에 주소를 둔 김태연(=김단야)은 1919년 8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이덕생, 오형선, 고운서, 주남고와 국권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군자금과 의용병을 모집해 만주 군정서에 보낼 것을 협의
- 군자금 830원과 함께 의용병 4명(주남수 등)을 김태연 인솔하에 군정서로 파견
- 이 사건 관계자는 대부분 계성학교 출신이거나 개신교 신자
- 사건 기록 가운데 1919년 4월 대구에서 조직된 혜성단이라는 단체가 등장. 종래 김단야의 활동 가운데 적성단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혜성단을 가리킬 가능성
- 이후 주남수는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했다가 국내로 돌아와 활동하던 중 일제 경찰에 피체
- 김단야는 미체포 상태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의 체포 대상이었을 것.
- 일제 경찰이 '군정서의 의용병 및 군자금 모집 사건'으로 부른 이 사건은 3.1운동 직후 첫 해외 망명을 결행할 때까지 김단야의 관심이 독립전쟁에 있었음을 시사. 상하이 망명 직후인 1920년 1월 광둥성에서 군사학교 입학에 기도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필요. 심훈이 <동방의 애인>에서 박진(김단야가 모델이었을 것으로 추정)의 군관학교 입학을 기술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 “나는 1920년 1월 중순 상하이를 떠나 그때 조선인 혁명가들을 위한 군사학교가 있던 광둥으로 갔다. 이 군사학교는 친일파 뚫치루이의 북양 정부에 대적하는, 쑨원 지도하의 광둥 정부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다”(자전)

- 상하이에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에 투신

- 1920년 4월 상하이로 돌아온 뒤 본격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길을 걷기 시작
- 이 무렵 상하이가 전체적으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 아래 중국 안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이 되어 가던 상황과도 이어짐. 일제에 따르면 당시 상하이는

‘극동 적화 운동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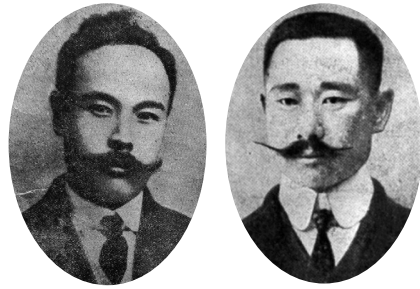
- 1920년 봄(5월?) 러시아공산당 외무인민위원부 극동전권위원 빌렌스키의 지시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이틴스키와 김만겸이 상하이에 도착
- 참조: 장지락의 회고 “1920년 상하이에 도착했을 당시, 나는 약간의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가진 한 명의 민족주의자일 뿐이었다. 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으며 제반 정치사상과 논리가 서로 각축하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처음에는 자연히 민족주의자 문화그룹에 들어갔으며, 그 후 어느 정도 공부와 관찰을 하고 나자 테러리스트와 무정부주의자들에게 기울었다. 그것은 민족주의자의 강령이 무기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운동은 이제 막 싹트고 있었으므로 나는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별로 몰랐으며 레닌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 김만겸은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고려부의 사실상 책임자. 1921년 말 상해 주재 고려공산당(이르쿠츠크파) 책임자로 나중에 극동민족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정도 주도
- 1920년 말 11월에 상하이에 도착한 박헌영은 나중에 쓴 이력서에서 “거기서 민족 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공산주의 조직에 들어갔다. 이 조직의 지도자로서는 김만겸, 이동휘 등이 있었다”고 기술. 김만겸, 이동휘 등이 지도한 조선인 공산주의 조직이란 1921년 5월에 출범한 재상해 한인공산당을 가리킴. 김단야도 박헌영과 함께 재상해 한인공산당에 입당했을 것.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만겸은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의 책임자가 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이동휘는 따로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조직. 이 과정에서 김단야는 이르쿠츠크파를 선택



項 事 別 受				身 分	住 所	出 産 地
及 其 事 由	執行 監 獄	刑 罰 期 間	刑 罰 名 稱	職 業		
編 號	監 獄	刑 罰 期 間	刑 罰 名 稱	職 業		
監 獄	監 獄	刑 罰 期 間	刑 罰 名 稱	職 業		
考 備 科 前						

- 참조: 박헌영의 상해 망명과 관련해 아들인 원경의 회고 “옛날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김태연 그러니까 김단야를 좋은 친구로 만났던 것 같아요. 단야가 아버지보다는 세상 보는 안목이 열려 있었던지, 상해를 택한 이유도 김단야 때문이었다고 해요”
- 참조: 상해파 김철수의 회고 “박헌영, 조봉암, 김단야 이런 사람이 상해에 왔다고.

우리(상해파) 공산청년회에 들어온다고 그
러기에...함부로 할 일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봐서 비밀을 잘 지킬만한가를
봐가지고 (허용)해야지, 아직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비밀리에 들여 뵈다가 큰일 난다. 좀
더 두고 보자, ...그랬더니 이동휘 딸 그 사람
은 안 가고, 셋은 저쪽(이르쿠츠크파)으로 갔단 말이여”



● 고려공산청년단 상해회 창립

- 김단야, 박현영, 임원근(1920년 말 상하이 도착)의 트로이카 성립: 동갑내기? 임원근(1899년생), 박현영(1900년생), 김단야(1901년생)
- 상하이에서 혁명운동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박현영, 임원근과의 만남: “음습한 비바람이 스며드는 상해의 깊은 밤 어느 지하실에서 함께 주먹을 부르쥔 사이“(심훈, <동방의 애인>)
- 1921년 3월 고려공산청년단 상해회(집행위원장 최창식)를 창립하고 박현영, 임원근 등과 함께 비서로 활동: 여운형은 경찰 심문에서 1921년 여름 박현영을 책임자, 김단야와 임원근을 위원으로 하는 고려공청이 조직되었다고 진술
-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영향
- 고려공청 상해회는 회원의 자격을 **30세 이하의 청년**으로 규정. 30세를 넘으면의 결권이 없는 찬성원으로 인정
- 고려공청 상해회는 상하이의 조선인 청년들에게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 고려공청 상해회는 **지방 기구**를 자임. 국내외 각지에 고려공청 지부를 결성한 뒤 **전 고려공산청년단 총대의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고려공청을 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활동
- 1921년 5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입당(후보 당원): 여운형의 진술에 따르면 1921년 여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지부(책임 김만겸, 여운형, 조동호)가 조직되었을 때 김단야는 임원근, 박현영, 최창식 등과 함께 당원이었다고 함

● 극동민족대회와 극동청년대회 참가

- 고려공청 상해회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참가. 고려공산

당(이르쿠츠크파) 후보 당원

- 상하이를 출발해 “천진, 봉천, 장춘, 하얼빈, 치치하얼을 거쳐 만주리까지 철도를 이용하여는 노선”으로 1920년 10월 30일 러시아에 입국
- 조사표의 직업란에 ‘혁명 사업’으로 명기. 이미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인식의 표현이었을 것
- 극동민족대회가 김단야에게 미친 영향
- 1925년에 쓴 ‘레닌회전인상기’에서 코민테른 의장 지노비예프의 연설을 길게 회고
- 지노비예프 연설의 핵심 “1918년에 끝난 제1차 제국주의 전쟁에 뒤이어 극동과 태평양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전쟁이 연속될 것이다. 이 전쟁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승리에 의해서만 회피된다. 이 전쟁이 1925년에 발발할지, 1928년에 발발할지, 1년 일찍 일어날지, 1년 늦게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다”
- 극동·태평양 문제를 둘러싼 미·일간의 모순이 결국에는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견은 김단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 ‘지노비예프의 1차 예언’으로 명명
- 코민테른 집행위원 겸 동양부장 사파로프의 보고: 제한적 민족 통일 전선. 피억압 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족 혁명 투쟁의 지도자, 모범적 담당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이 운동 속에서 독립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 한국에서도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타협과 평화주의에 의거해 그 나라의 해방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폭로해야 한다”고도 발언. 결국 민족 혁명 운동과의 통일 전선을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배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셈
- 극동청년대회(1922년 1월 30일-2월 1일)에도 조선인 대표로 참가. 김단야를 대표로 선정한 것은 국제공청 극동비서부 고려부. 당시 고려부를 주도한 것은 이르쿠츠크파의 조훈.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성원으로 극동청년대회에 참가



- 극동민족대회와 극동청년대회 이후의 노선 전환

- 이르쿠츠크파 성원들이 이전의 민족 통일 전선 부정론에서 벗어나 제한된 민족 통일 전선 방침을 수용하는 계기
-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중운동론을 전면 수용. 대중 속에서 혁명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
-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당시 사회주의 운동 세력 가운데서 해외의 두 공산당을 배격하고 국내를 사회주의 운동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

-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의 국내 이동 결정과 그에 따른 귀국

- 극동민족대회 이전인 1921년 8월 국제공청의 지시에 따라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이 베이징에서 출범. 김단야는 애초에 중앙간부에서 빠져 있었는데 1922년 3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직후에 고려공청 제2차 중앙총국의 중앙집행위원이 됨
-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의 연락을 끊을 것과 고려공청 중앙총국을 국내로 옮기기 위해 김단야, 박헌영, 임원근의 트로이카가 모두 귀국할 것을 결정
- 고려공청 중앙총국의 국내 이전 이후 과제: 1) 고려에 유일한 당이 조직될 때까지 어떤 파당에든지 가담치 말고, 오직 국제공청의 지도하에서 조선내 모든 운동에 직접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내지에 있는 공산주의 단체와 사상적 연락과 편의를 도모할 것, 2) 공청에서는 가장 혁명적 성질을 가진 청년단체와 학생단체에 들어가 야체이카를 조직하되 우선 8개 야체이카만 조직되면 곧 창립대회를 소집한 후 전국적으로 각 청년단체에 들어가 혁명화시키며, (중략) 이어 표현적 대연맹을 만들 것, 3) 간도 방면에 특별한 시설로서 의병 운동과 직접 연락을 지을 것 등
- 1922년 3월 25일 상하이 출발, 4월 3일 신의주에서 피체,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10개월 동안 옥고

4. 고려공산청년회 창립과 중앙집행위원으로서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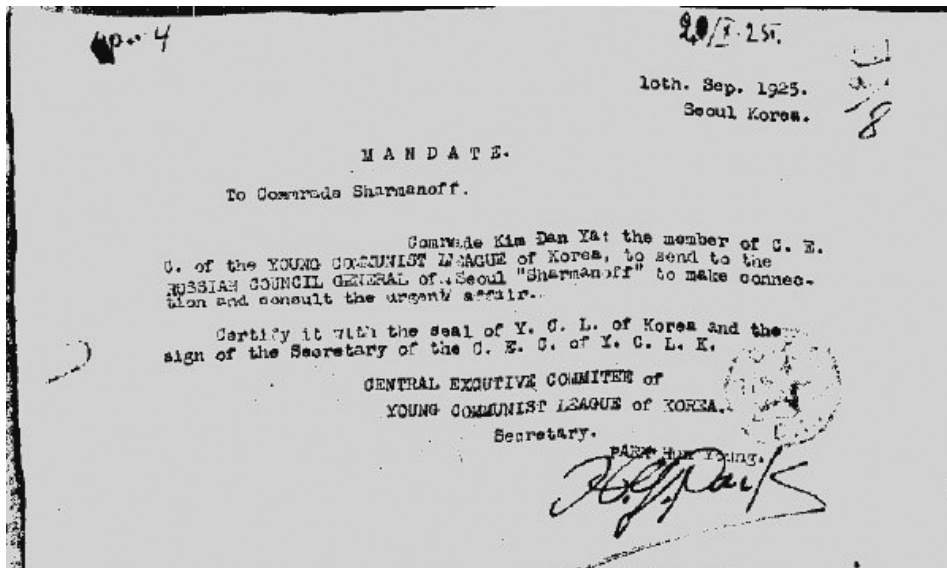
- 출옥 이후 조선일보 기자 신분을 이용한 활동

- 1924년 8월부터는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던 유광렬의

회고 “내가 조선일보에 있을 때 사회부기자로 임원근과 함께 박헌영 김단야 조봉암 등이 있었지만 김단야를 제외하고는 기자로서는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김단야는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써서 내가 몹시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 참고: 박헌영은 1924년 4월부터 1925년 5월까지 동아일보에 재직
- 기자라는 합법 신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를 창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취재를 내세워 국내 각지를 오가면서 비밀결사 세포들과 연락을 취함. 국제 기관과의 연락도 가능
- “신의주감옥, 평양형무소 안에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왔다. 일천구백이십사년 일월 십구일...자유의 발길을 움켜노렸다. 그러나 자유는 빗조흔 개살구이었다. 간 곳마다 앞을 막는 생활난은 몹시도 시달리고 짓밟히든 이 몸을 또다시 뺑버리라는 구령으로 몰아넣게된다. 그래서 방금 조선일보사에 기자라는 간판을 이마에다 부치고 넓은 장안을 좁다고 밤이나 낮이나 도라다니며 밥을 먹게 되었다”(레닌회견인상기)라는 김단야의 독백은 자신이 벌이는 혁명운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
- 1925년 9월 고려공청 중앙집행위원의 자격으로 곧 서울에서 문을 열 예정이던 소련 총영사관의 초대 총영사 샤르마노프와 회견. 일제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샤르마노프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일보 기자라는 합법 신문이 있었기에 가능
- “현지 신문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스크바에서 남만춘으로부터 신문사에서 일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 15명의 성명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Gr. 동무에게서 얼마 전 그 명단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4명의 이름을 보충적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도착한 지 20분 뒤에 경성역 호텔에 그 명단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신문기자 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것처럼 빠른 접근에 깜짝 놀랐고 의혹을 품었습니다. 얼마 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사에서 근무하는 김단야인데, 그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곧바로 나를 만났던 것입니다”(샤르마노프가 소련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
- 기자가 기고하는 형태로 조선일보에 레닌회견인상기를 1925년 1월 22일부터 1925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연재. 5회 기사는 검열로 완전 삭제되었지만 나머지는 완곡한 형태로나마 극동민족대회와 극동청년대회의 상황을 대중에게 소개. 특히 레닌으로 상징되는 국제 혁명 운동이 조선 민족해방운동을 SUPPORT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알리는 효과. 워싱턴 회의와의 대비
- “김규식씨가 담화 중에 잠깐 막힌 말이 있었다. 그때에 레닌은 얼른 그 막힌 말을 일러주었는데 그것은 곧 도움(SUPPORT)이란 말이었다. 물론 김규식씨가 영어에

대한 어학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은 아니다... 서로 돕는 말을 하기는 좀 거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잠간 주저하는 동안에 눈치 빠른 레닌은 얼른 그 말을 계속 식혀준 것이다”(레닌회견인상기)



조선일보, 1925년 1월 27일



조선일보, 1925년 1월 29일: 김단야는 스스로를 “동양 소약민족과 압박받는 군중을 대표한 혁명가 망명가”로 규정

- 1925년 1월 조선일보 기자라는 합법 신분으로 상하이 방문: 공식적인 목적은 중국 군벌 사이의 충돌을 취재한다는 것. 실제로는 상하이의 국제 기관 및 혁명 운동가와 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회 창립을 협의하기 위한 것? 이 무렵 화요파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던 조동호도 동아일보 기자 자격으로 상하이 체류 중. 일제 기록에 따르면 김단야와 조동호는 상하이에서 여운형, 최창식, 윤자영 등과 회합해 운동 방침을 협의
- 상하이 방문의 실제 목적을 감추기 위해 '제주도를 조망하면서, 상해 가는 길에'와 '두 번째 상해를 밟고, 신년을 맞으면서'라는 그럴듯한 제목의 기행 기사를 조선일보에 게재



• 각종 합법 단체에서의 활동

- 신흥청년동맹 가입. 1924년 9월 14일 열린 신흥청년동맹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피선
신흥청년동맹 강령 수정
본동맹은 사회진화의 법칙에 의하여 신사회를 건설할 역군 훈련과 양성을 기함
본동맹은 무산계급청년의 단결을 도함
본동맹은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하며 당면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함
- 조선청년총동맹 간부: 1924년 4월 21일에 열린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에서 대구청년회 대표 자격으로 중앙집행위원에 피선. 이어 4월 24일에 열린 임시대회의 종교 문제 결의(종교를 원리상으로는 부인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배척

치 말고, 다만 종교가 민중을 마취케 하여 그 참다운 각성을 저해하는 폐해만 일반 청년에게 이해케 함)에 영향?

- 신흥청년사 상무위원: 1924년 8월 11에 열린 신흥청년사 창립총회에서 박헌영, 김찬, 임원근, 홍증식 등과 함께 상무위원으로 피선. 겉으로는 신흥청년동맹의 기관지이지만 실제로는 고려총국 중앙총국의 기관지이던 『신흥청년』을 발행하기 설립된 잡지사
- 화요파가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청 창립을 앞두고 1925년 4월에 열 예정이던 전조선 민중운동자대회의 준비위원으로 임원근, 박헌영, 김찬, 조봉암, 박일병, 권오설, 주세죽 등과 함께 피선. 반기독교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전, 폭로, 학교의 종교 교육 반대’의 사상 투쟁을 토의할 예정.

● 고려공산청년회 제1차 창립대표회 주도

- 고려공청 창립의 주역: 김단야, 박헌영, 조봉암(고려공산청년회창립대표회준비위원회)가 “창립대회에 대한 일체 사무를 집행”
- 4월 18일 고려공산청년회 제1차 창립대표회 개최. 고려공산청년회라는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도 굳이 창립대표회로 부른 것은 조선공산당의 지도 아래 성립되는 최초의 공산청년회로 자신의 위상을 규정했기 때문
- 10개 도 28개 세포회의 대표 19인과 조선공산당 대표(김찬) 1인: 김단야, 박헌영, 임원근, 홍증식, 김동명, 조이환, 조봉암, 김찬, 임형관, 진병기, 염창렬, 장순명, 권오설, 주세죽, 전해, 전무, 박길양, 신철수, 안상훈, 김상주 등. 박헌영이 체포된 뒤 언급한 김광, 김일성, 정경창은 일부 참석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
- 고려공청은 화요파의 주도 아래 화요파 성원만으로 출범. 형식상으로는 화요파, 상해파, 북풍파의 3파가 참여한 조선공산당 창립과는 다른 형태
- 참석자 가운데 규약에 따라 조선공산당에서 파견된 김찬(32세) 외에는 전원이 30세 이하. 1895년생인 홍증식이 30세로 최고 연장자. 여기에 1896년생인 박길양과 진병기를 제외하면 대분의 참석자가 20대 중반. 김단야 등은 고려공청 상해회부터 시작해 신흥청년동맹을 거쳐 줄곧 견지해 오던 공청원 30세 연령제한론을 계속 관철. 규약에도 그대로 반영(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 김단야의 역할: 창립대표회의 임시 의장. 강령 낭독. 작성을 주도? 5명의 선거위원(김단야, 박헌영, 조봉암, 신철수, 홍증식) 가운데 1인.
- 7인 중앙집행위원 가운데 한 사람: 박헌영, 김단야, 신철수(곧 임원근으로 교체), 김

찬, 권오설, 홍증식, 조봉암

- 김단야가 담당한 부서에 대한 여러 기록의 혼선: 연락부(박헌영), 조직부(김찬), 비서부(권오설)
- 고려공청 창립대표회에서 채택된 강령: 코민테른과 국제공청에 보고한 강령과 피제된 박헌영이 일제 경찰의 심문에서 밝힌 강령의 차이

● 비합법 기구인 고려공청의 간부이면서 동시에 합법 단체인 신흥청년동맹의 핵심 인물

- 공식적인 대외 활동은 주로 신흥청년동맹 이름으로 이루어짐. 1925년 9월 신일용 필화 사건의 여파로 10월 15일 조선일보에서 해직되기 전까지는 조선일보 기자 신분도 적극 활용
- 고려공청 창립 직후인 1925년 5월에 열린 신흥청년동맹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피선
- 1925년 9월에 열린 신흥청년동맹 정기총회에서 교육강령 작성위원 가운데 1인(다른 위원은 박헌영, 임원근, 권오설, 박일병)으로 피선. 교육강령의 핵심은 청년 운동의 핵심인 교양 사업을 위해 “만국 무산 청년 운동에 공통된 근본적 교육 강령”을 만든다는 것
- 강연 활동: “남선 시찰을 이용해” 전라남도 순천의 강연회에서 ‘청년운동의 신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종래의 청년운동을 비판하면서 청년운동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 ‘시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합법 청년 단체 간부 이름으로 남부 지방 각지를 돌면서 고려공청의 조직 상황을 확인하고 새 야체이가 결성을 독려하는 활동이었을 것
- 합법 신분을 내세웠지만 곳곳에서 일제의 간섭과 방해

● 김단야와 반기독교 운동

- 조선공산당은 민족 통일 전선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종교 세력의 경우 천도교만을 통일 전선의 대상으로 규정.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원칙을 견지
- 1925년 5월의 신흥청년동맹 정기총회에서 “종교는 대중의 마취제이므로 이를 철저히 반대하자”라는 결의를 채택
- 1925년 10월 25일 한양청년연맹 주최 반기독교 강연회에서 ‘기독교의 기원’
- 1925년 10월 29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문제 강연을 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의해 금지

- “현순은 그 후 상해를 거쳐 하와이 포와에서 방금 목사노릇을 하고 있다 한다. 한때에는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던 그가 오늘날 다시 목사의 직에 나아갔다 함은 뜻하지 못한 사실이다. 세월이 변하니까 인심도 변하는 것이 괴이치 아니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말하기 어려운 한 어려운 한 조각 느낌이 없지 않다. 아무 때나 그를 만나는 때에 한마디 말을 주고자 한다”(레닌회견인상기)

5. 맺으며

-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조선 혁명을 추구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김단야도 ‘3.1운동의 후예’
- 김단야는 개신교에서 사회주의로의 인식 전환을 이룬 혁명 운동가 가운데 대표적인 보기: 이동휘, 여운형, 김규식 등과 비교하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경우
- 김단야가 처음부터 사회주의 혁명 운동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 사회주의 혁명가로 전환한 시점은 광둥성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1920년 4월부터 고려공산청년단 상해회에 가입한 1921년 3월 사이일 것으로 추정됨
- 김단야는 처음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때 당시 상하이에서 보이틴스키, 김만겸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던 국제 혁명 운동 기관의 동아시아 혁명 운동 지원에 눈을 뜬 것으로 보임. 이후 김단야의 삶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 죽을 때까지 국제 혁명 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조선 혁명의 길을 추구

6·10만세운동과 김단야

박종린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들어가며

1926년 4월 순종이 승하하자 천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과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인산일에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일 제에 발각되어 **조선공산당은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의 지도 아래 학생 운동을 이끌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 학생운동단체들의 움직임은 발각되지 않았다.**

6월 10일 일제 군정의 삼엄한 경비 아래서도 학생들은 격문을 뿌리고 만세시위를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날 일제 군정의 강경 진압으로,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수 백명의 학생이 검거되었다.(박종린 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321쪽)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될 만큼, 6·10만세운동은 사회주의자들 주도의 민족 통일전선운동의 성격.

* 6·10만세운동의 한 주체인 사회주의자들의 6.10만세운동에 대한 전일적 연구는 매우 소략.

— 6·10만세운동 전반을 검토하면서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와 고려공산청년회’를 다룬 장석홍의 연구(『6·10만세운동』, 2009), 6·10만세운동 시기 고려공산동맹의 움직임을 검토한 전명혁(『6·10만세운동 시기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동맹의 활동』, 『역사학연구』58, 2015)의 연구가 대표적.

* 6·10만세운동의 한 주체인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

—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와 상해임시특별연락부의 관계

- 6·10만세운동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인식
- * 본 발표는 위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1) 상해임시특별연락부의 위상과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와의 관계, 2) 『불꽃』과 격고문 등에 보이는 6·10만세운동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을 검토
- * 위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金丹治

Ⅱ. 고려공산청년회와 상해임시특별연락부

1. 제1차 조선공산당 탄압사건과 권오설 중앙

- * 1925년 4월 18일, 고려공산청년회 조직
- 중앙집행위원회(7인) ~ 박현영(책임비서), 권오설, 김단야, 김찬, 임원근(← 신철수 / 적기사건), 조봉암, 홍증식
- 중앙검사위원회(3인) ~ 김동명, 임형관, 조이환
- * 1925년 11월 제1차 조선공산당 탄압사건
- 고려공산청년회의 궤멸적 타격
- 검거 ~ 박현영, 임원근, 홍증식 / 임형관, 조이환
- 해외 ~ 김단야, 김찬(12월 상해로) / 조봉암(5월 모스크바 행)
- 국내 ~ 권오설 / 김동명
- *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회 재건
- 권오설, 김동명 중심
- 권오설(책임비서), 김동명(→ 박민영), 염창렬, 이병립, 이지탁 / 이상훈, 전덕

2. 상해임시특별연락부 조직과 김단야 비서

- * 구성원 ~ 상해로 망명했던 조공과 공청의 중앙 간부로 구성
- 김단야(책임비서) ~ 공청 중앙위원 / 12월 망명
- 김찬 ~ 조공 중앙위원, 공청 중앙위원 / 12월 망명
- 조동호 ~ 조공 중앙위원 / 25년 5월 모스크바, 26년 6월 상해로
- 조봉암 ~ 조공 검사위원, 공청 중앙위원 / 25년 5월 모스크바, 25년 10월 상해

☞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여운형, 남만춘은 구성원이 아님.

* 조직 개편

— 1926년 1월경 조직

— 임시상해연락부, 상해특별연락부 등으로 불림

— 1926년 5월 상순에서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조선공산당 제2차 당대회까지만 **‘임시’**
기구로 운영

— 1926년 5월 전후 ‘해외부’로 변경

— 1926년 7월 경 폐지

* 상해임시특별연락부의 위상(권리와 의무)

— 새로운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지원

— **공청의 모든 보고는 중앙집행위원회 비서와 상해임시특별연락부 비서가 서명**

— 만주에 대한 사업은 상해임시특별연락부가 지도하며, 중대 문제는 중앙집행위원회
와 협의

— 차기 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

— **코민테른, 중국 등과의 연락 관계 담당**

— 국내와 해외 왕래 시 편의 제공

☞ 기존 연구에서 상해임시특별연락부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지도하는 것처럼 서술하
는 것은 문제

Ⅲ. 6·10만세운동과 민족통일전선

1. 6·10만세운동 준비

조선 민중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하는 ‘조선공산당’과 또 그의 지휘
아래 있는 ‘고려공산청년회’에서는 밖으로 ‘6월 10일’ 그 기회이용을 선전하고, 안으로
그 날을 이용할 선전·선동의 재료 및 시위운동의 준비를 극히 계획적으로 행하여 왔나
니, 그것은 **李珣의 죽던 그날부터 시작한 것이다.** (爾友, 『六月運動의 真相 - 六六事件
과 六十運動』, 『불꽃』 6, 1926. 7.20, 5쪽)

**六月運動의 계획이 조선 안에 있는 혁명동지들의 계획이오(해외 망명중의 혁명가들도
도운 것은 사실이다)** 또는 그 운동에 희생적으로 참가한 동지 중에 공산주의자가 다수

인 것은 사실이나 결코 **그 운동이 赤化運動이 아니고 確實히 민족적 독립을 목표로 한 운동**인 것을 明言하려 한다.(爾友,『六月運動의 真相 - 六六事件과 六十運動』,『불꽃』 6, 1926. 7.20, 8쪽)

☞ 6·10만세운동의 준비는 순종이 죽자, 권오설 중심의 고려공산청년회의 '6·10운동 투쟁지도특별위원회'와 김단야 중심의 상해임시특별연락부가 함께 진행.

1) 상해임시특별연락부와 김단야

* 1926년 4~5월 김단야의 행적

- 4월 15일 상해 출발
- 5월 8일 상해 복귀
- 5월 12일 해외부 책임자 명의로 국제공청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 『불꽃』 발행 주도 / 爾友

5월 나는 조선의 마지막 왕의 죽음과 관련하여 정치 캠페인을 조직하기 위해 **조선에 몰래 숨어들어갔다**.(김단야,『이력서』, 1937. 2. 7)

- 평양까지 들어가서 조공, 공청 간부들과 모임
- 5월 1일 안동현에서 권오설 만남

☞ **김단야와 권오설이 5월 초 회동한 것은 사실**. 장소(국내 - 평양, 국외 - 안동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김단야 본인의 기록의 무게로 본다면 국내의 모처에서 회동한 듯**.

* 『불꽃』

- 상해임시특별연락부(해외부)의 기관지
- 상해에서 발행 / 발행지 '京城' 강조, '上海通信'란
- 현재 7호까지 확인
- 1호(1.15), 2호(3.15), 3호(5.1), 4호(5.15), 5호(6.1), 6호(7.20), 7호(9.1)
- 2회 이상 집필자는 爾友, 南靑, 兩口光, 千里駒, 睨南, 愚豪 등 / 爾友가 가장 많이 집필

2) 고려공산청년회의 '6·10운동투쟁지도특별위원회'

* 구성원~ 권오설(책임), 박민영, 이지탁

* 투쟁 방침

－ 혁명분자를 망라한 ‘대한독립당’ 조직

－ 6월 10일 인산일에 시위운동 전개

－ 연도에 시위대 분산 배치, 격고문과 전단 살포, 대한독립만세 고창

* 이병립(조선학생과학연구회, 시위), 박래원(천도교, 인쇄 및 배포)

2. 절대독립론과 민족통일전선

조선 민중의 당면의 急務는 革命 民衆이 大×하여(조선에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농민이 계급적으로 단결한 全無産階級과 全民族 反帝國主義 革命分子와 鞏固히 협동하여) 공동의 적인 彼 일본제국주의를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驅逐하고 박멸한 후 조선은 **조선인 자신이 運×하는 절대독립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 민중의 역사적 사명이요, 국제적 임무의 履行이요, 또 완전한 자유와 생존권을 확보함에 유일한 선결조건이다. (『창간사』, 『불꽃』 1, 1926. 1.15, 1쪽)

唯一協同戰線은 一黨 一團 혹은 一階級의 사람으로 될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일본제국주의를 배척하고 조선의 절대독립을 주장하는 자는 다 같이 一戰線에 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唯一戰線의 旗발 아래 조선의 多數 群衆 즉 노동자, 농민으로부터 知識者, 상인 급 기타 각종 各 階級의 사람이 다 같이 설 수 있는 것이다. (皖南, 『共同的 敵을 撲滅키 爲한 朝鮮民族의 唯一戰線』, 『불꽃』 4, 1926. 5.15, 2쪽)

☞ 식민지 조선의 절대독립 지향. 이를 위해 동일한 지향을 가진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고 지식인과 일부 부르주아지가 결합하는 민족통일전선(협동전선, 유일전선) 결성 강조

* 欄外 슬로건

－ 朝鮮의 絶對獨立을 이루자!

－ 日本의 帝國主義를 撲滅하자!

－ 朝鮮의 革命分子는 一致團結하여 民族的 統一戰線을 짓자!

－ 全世界 無産階級과 被壓民族은 團結하라!

－ 工場은 勞働者에게! 土地는 農民에게!

조선의 革命同志여! 六月 十日 그 날을 놓치지 말자! **民衆의 속으로 들어가고 民衆의 先頭에 나서서 그들을 革命的으로 指導하자!** …… 우는 民衆아! 지금부터 함께 일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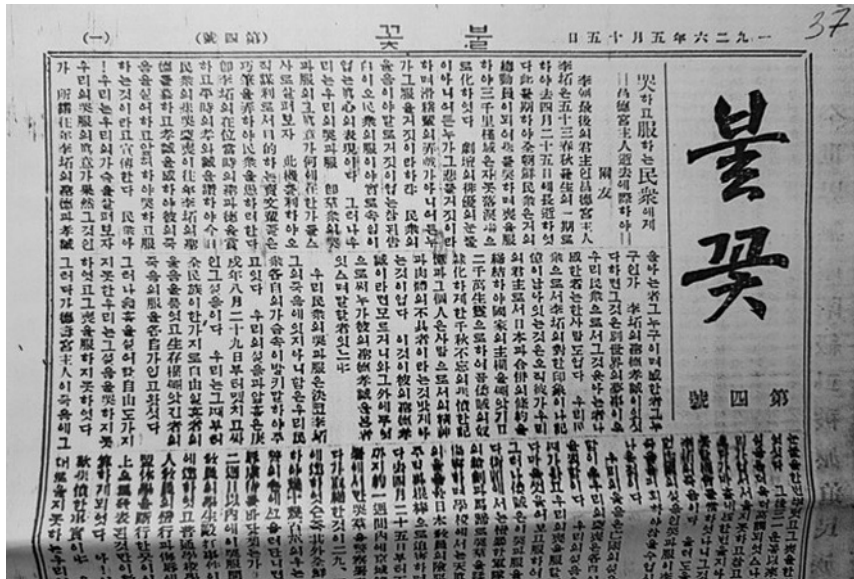
고 한데 뭉치여 革命團體의 旗발 밑으로 모이자! 그의 指導를 따라 움직이자! (『戰鼓』, 『불꽃』 5, 1926. 6. 1, 8쪽)

— 우는 民衆아! 革命的 旗발 아래로 모이자!

— 革命同志여! 힘을 아울러 이 時機를 놓치지 말자!

☞ 혁명동지의 ‘지도’와 민중의 결합 강조. 3·1운동의 지도부 부재 비판.

1) 불꽃사 명의의 격문 - 「뜻하고 服하는 民衆에게 - 昌德宮 主人 逝去에 際하여」



『불꽃』 제4호에 게재된 爾友 명의의 사설(「뜻하고 服하는 民衆에게 - 昌德宮 主人 逝去에 際하여」)을 표어만 삭제하고 전체 '1926년 5월'자

우리의 설움과 눈물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가 주는 것이다. 故로 우리의 설움과 눈물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일본제국주의를 조선에서 驅逐함**에 있다. …… 전 조선 민중의 단결로써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투쟁을 始하자. 그러나今日の 우리 자체의 혁명적 역량과 국제적 환경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최후 革命戰線을 陳할 기회는 아니다**. 당면한 우리의 가장 아픈 문제를 들어 투쟁하자.(爾友, 「뜻하고 服하는 民衆에게 - 昌德宮 主人 逝去에 際하여」, 『불꽃』 4, 1926. 5.15, 1쪽)

☞ 최소한 요구의 표어 6항목과 투쟁의 표어 7항목 제시

— 언론·집회·출판의 자유!

— 在獄한 革命者들을 석방하라!

— 군대와 헌병을 撤去하라!

- 조선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라!
- 학생들을 압박하지 마라!
- 國庫金으로 문맹을 퇴치하라!

- 一切 國稅를 바치지 말자!
- 일본 物貨를 쓰지 말자!
- 조선인 관리는 일체 퇴직하자!
- 일본 상인과 관계를 단절하자!
-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자!
-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 일본인 교원에게 배우지 말자!

2) 격고문과 전단 4종

* 격고문

식민지에 있어 **민족해방이 곧 계급해방**이고 정치적 해방이 곧 경제적 해방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식민지 민족이 모두 무산계급**이며 제국주의가 곧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 혁명적 민족운동자 단체 만세! 조선독립 만세!

☞ 격고문은 **대한독립당** 명의의 발표되었는데, 권오설이 집필. 총체적 무산자론에 입각하여 식민지 민족의 해방을 논하고 있다.

* 전단 4종

☞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를 제외한 3종은 권오설이 작성.

-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

☞ 『불꽃』 제4호에 게재된 爾友 명의의 사설(「哭하고 服하는 民衆에게 - 昌德宮 主人 逝去에 際하여」)의 표어를 전재. 13항목 가운데 3항목(조선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라!, 학생들을 압박하지 마라!, 國庫金으로 문맹을 퇴치하라!)은 삭제.

-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

☞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 **대한학생회**의 명의로 발표.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爾友의 글(「六月運動의 眞相 - 六六事件과 六十運動」, 『불꽃』 6, 1926. 7.20)에 제시된 5항목과는 상이.

- 「산업은 조선인 본위로!!!」

☞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 **대한농민의용단**의 명의로 발표,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爾友의 글에 제시된 11항목과는 상이.

— 「대한독립만세!!!」

☞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爾友의 글에 제시된 노동자에 대한 18항목의 내용과는 완전히 상이.

☞ 『불꽃』 제4호의 사설 표어를 전재한 전단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의 존재는 5월 회동의 결과이며, 내용이 상이한 3종 전단의 존재는 권오설 중앙과 상해임시특별연락부의 관계가 일방적인 지도·피지도 관계가 아닌 상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12월 테제와 김단야

임경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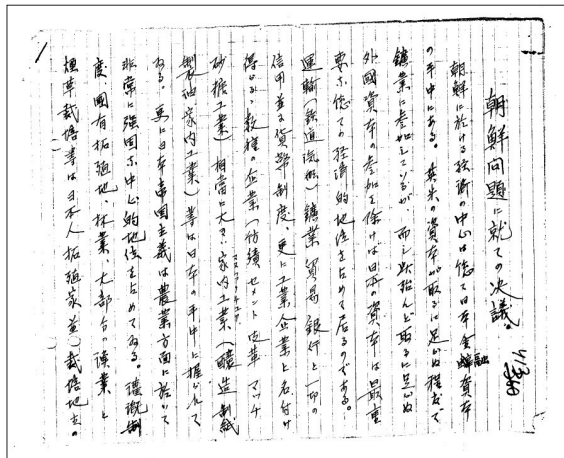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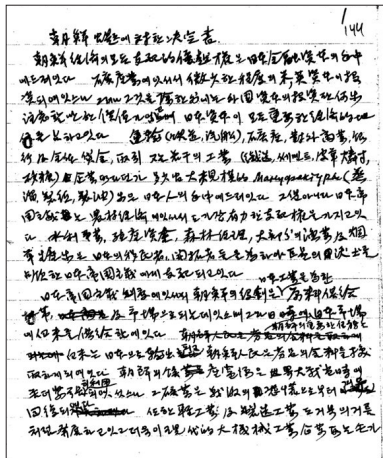
1. 문제제기

문제의 소재

- 12월 테제는 누가 만들었는가?
- 12월 테제 작성과정에서 김단야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비밀간행물 <계급투쟁> 창간호(1929년) 지면에 실린 12월테제 한글본 표지



12월테제 국한문필기본, РГАСПИ ф.495 12월테제 일본어필기본,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56, о.п.135 д.150, 144-153 412-428

기존의 견해

리버럴

“일제하 조선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이념적인 공급자는 러시아의 레닌주의자들이었으며,……코민테른의 인식 체계가 변화할 때마다 (조선사회주의운동도) 변화하는 전적인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 진덕규, 「한국 민족운동에서의 코민테른의 영향에 대한 고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396쪽, 401쪽

진보적 실증 연구

“(코민테른의 조선문제 해결 방식은) 코민테른이 조선인을 배제하고 내린 결정을 조선 혁명운동에 위로부터 권위주의적으로 부여하는 형태였다.”

— 水野直樹,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론과 신간회운동」, 역사비평 1988년 봄, 346쪽

2. 12월 테제란

12월 테제란?

- 1928년 12월 10일에 코민테른 정치비서부가 채택한 조선문제결정서

- 일제하 조선사회주의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기념비적인 문헌
- 2개의 결정으로 이뤄짐
 - 조직문제 결정 (비공개)
 - 정치문제 결정 (12월테제)

3. 12월 테제의 작성 주체

코민테른 조선위원회 설립

- 1928년 9월 7일
 - 국제당 제6차대회(1928년 7월17일 - 9월1일)가 종료된 직후
- 최상급 정치비서부 내, 한시 기구
 - 11인 정치비서부 위원 가운데 3인으로 구성
 - 쿠시넨 (1881-1964) 위원장. ‘쿠시넨위원회’라고 호명함
 - 램멜레 (1880-1939)
 - 파트니츠키 (1882-1938)

조선위원회 위원



쿠시넨(핀란드)



램멜레(독일)



파트니츠키(러시아)

조선위원회 임무

- “조선공산당 양측과 협의하고, 그렇게 입수한 정보에 의거하여 국제당과 이 그룹들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입안”하는 것 (정치비서부 1928.9.7 회의록)
 - － 조선공산당 ‘양측’과 협의하여 정보를 얻고,
 - － ‘국제당과 양 그룹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 일

실무 기구의 지원

- 동방지역비서부(Восточный лендерсекретариат)의 역할
 - － 회의 자료 작성
 - － 결정 사항의 집행
- 기구와 예산
 - － 극동부: 조선,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 － 중동부: 인도,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 － 근동부: 터키, 페르시아, 시리아, 아라비아
- 동방비서부장: 쿠시넨

곤란한 문제

- 2월 당(서상파) 대표
 - － 이동휘, 김규열, 박진순(통역)
 - － 국제당 제6차대회(1928.7.17-9.1) 참석차 이미 모스크바에 도착, 체류중
- 12월 당(엠엘파) 대표 부재
 - － 제6차대회에 대표 못 보냄

12월당(서상파) 대표



이동휘



김규열



박진순(통역)

해결방안

- 2월 당 대표를 모스크바로 불러들임. 2-3개월 시일 지체됨
- 모스크바 체류 중인 공청 대표 강진, 역할 대행
 - 국제공청 제5차대회(1928.8.20-9.18) 참석



강진

4. 조선위원회의 활동 일정

자격문제를 둘러싼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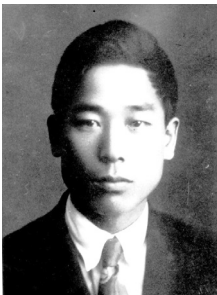
- 9월 7일, 설립
- 9월 20일, 조선문제청문회
 - 조선위원 + 각당 대표
 - 12월 당 우월론, 2월당 정통론, 신당 창당론
 - 청문회 직후 초안작성소위원회 구성. 책임자 이텔손
- 격돌: 쿠시넨 vs 이동휘

김단야는 조선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 두 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당원 그룹을 대표한다.

조선공산당 ‘양측’ 외에는 인정해서는 안된다. ‘고참 당원그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참 당원그룹’(화요파) 대표 김단야

- 1926년 9월. 국제레닌학교 입학
- 쿠시넨위원회에서 ‘고참 당원그룹’(группа старых партийцев)의 대표자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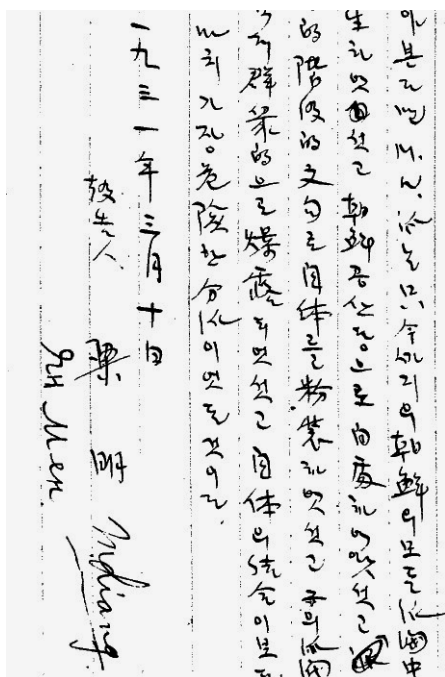


김단야와
그가 1926-29년 수학한
국제레닌학교

초안의 작성 경위

- 9월 22-25일 각당 서면 활동보고 접수
 - 9월 22-24일, 12월당 보고서 등 4종 문서 제출
 - 9월 22일, 강진 보고서, 노어 타자본 2쪽
 - 9월 25일, 김단야 보고서, 영문 33쪽
- 10월 1일-11월 3일, 각당 버전의 결정서 시안 접수
 - 이텔손, 각 대표에게 조선문제결정서 시안 제출 요청
 - 10월 1일, 12월당 - 러시아어 타자본 12쪽
 - 10월 24일, 고참당원그룹 - 영문 타자본 65쪽
- 11월 3일, 2월당 - 러시아어 타자본 6쪽
 - 11월 9-13일, 이텔손, 초안 두 종류 작성
 - 조직문제결정: 신당 창당론
 - 정치문제결의(12월테제, 3쪽 소략)
 - 11월 13일의 분수령적 의의

2월당(엠엘파) 대표, 10월30일경 도착



한빈

양명 (필적)

신당창당론을 둘러싼 2중 갈등

- 11월 14일 조선위원회, 초안 심의회
 - 조선위원 + 각당 대표
- 11월 15-19일, 각 대표, 심의의견 제출
 - 11월 15-19일, 신당 창당론 저지를 위한 최후의 노력
 - 12월 당, 양당연합중앙위원회 구성안 제안
 - 2월 당, 거절. ‘권한 없음’
- 11월 24일 조선위원회 원안 확정
 - 동방비서부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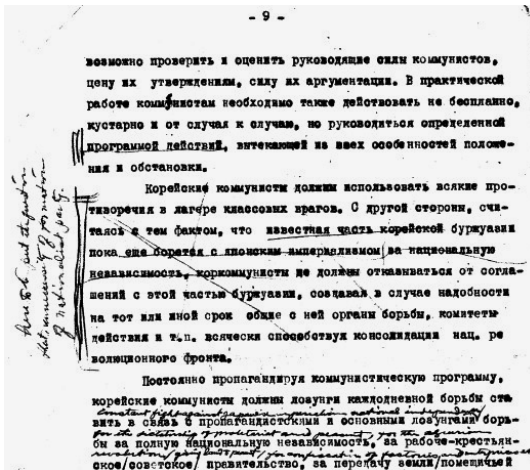
조선위원회 이후

- 11월 27-29일 동방비서부 심의, 교열
- 12월 7일 동방비서부 승인안 채택
- 12월 10일 정치비서부 최종안 채택

5. 김단야의 역할

11월 13일자 이텔손초안

- 김단야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임
- 조직문제 〈당내결정 초안〉
 - 2월당의 정통론과 12월당의 자당 우월론을 배제
 - 김단야의 신당 창당론을 채택: 현존하는 두 공산당은 진정한 당이 아니라 타기해야 할 분파주의의 소산임. 둘다 결함과 과오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산당을 만들거나, 양자 통합에 기반하여 공산당을 세우는 방식은 옳지 않다. 기존의 두 공산당을 인정하지 말고 국제당의 직접 지도하에 새로운 공산당을 만들어야 한다.
 - “상쟁하고 있는 조선 공산주의 그룹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국제당 조선지부 대표권의 승인을 거절한다.”



김단야의 육필 수정의견이 적혀 있는 11월 24일자 12월테제 조선위 원안

6. 맺음말

12월테제는 누가 만들었는가? 김단야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종래에는 12월테제가 국제당을 좌우하는 소련 볼셰비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이해함.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은 국제당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단지 소련의 지시에 맹종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봄. 근거없음.

조선인 각 대표자들의 문서는 12월테제 작성의 모본이 됐음. 국제당 조선담당관들은 전적으로 조선인 대표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했음. 조선위원회 위원들도, 이텔슨 등 실무 조사관들도.

김단야가 작성한 방대한 정치적 문헌들은 일제하 조선 사회주의운동이 도달한 이론, 정책 역량의 높이를 대표함.

김단야는 12월결정서 채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조직문제 결정은 김단야가 제기한 신당창당론을 수용함으로써 이뤄졌음. 그는 12월결정서의 기본 골격을 설계한 사람.

스탈린의 숙청과 김단야

윤상원 전북대학교 사학과

1929년 이후 김단야의 행적

- 1929년 6월 - 조선 파견(11월까지 활동)
- 1930년 2월 -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여 모스크바로 귀환
- 1930년 4월 - 상하이 파견(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여 9월 상하이 도착)
- 1933년 3월 - 박헌영 상하이 도착, 7월 체포
- 1934년 1월 - 모스크바 귀환
- 1934년 2월 -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과 과장
- 1936년 8월 - 동방노력자공산대학 폐교
- 1937년 -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선과장
- 1937년 12월 2일 체포
- 1938년 2월 13일 선고 처형

모스크바 귀환 후 김단야에게 씌워진 의심

- 1934년 3월 19일 -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인사부 앞 청원서
 - “저는 저를 포함하여 나를 다소 유명한 조선인 동무들의 이력 및 평가와 관련된 문서들이 ….. 동무의 관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 “며칠 후에 제가 최성우 동무와 함께 상기 문서를 조사했을 때…”
 - “소지주의 아들이며, 태생은 ……이고, 조부는 목사이다. <배재대학>을 졸업하고 1921년에 <시두일보>에서 일했으며 ……”
 - “그 문서에 담긴 왜곡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명예를 깎아 내리기 위해

미리 계산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서에는 다른 동무들을 언급하는 부분에도 역시 적잖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요청

- “그래서 저는 동무들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저의 이력을 수정하여 주십시오. 둘째, 그런 정보가 어떤 출처에서 유래하여 어떤 의도로 기술되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문서를 전체적으로 검사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문서가 현 형태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평가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 일찍부터 김단야를 비롯한 모스크바의 한인 혁명가들에 대한 조사와 의심이 존재

- 김단야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

- 최성우의 고백 : 김춘성(이성태)으로부터 들었다.
- 김춘성 : “최성우로부터 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다닌다.”
- “최성우는 자기가 김춘성에게 뭐라도 이야기했을 것 같으나며 부인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가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김한과의 관계에 대한 추궁 - 1936년 초 계폐우에 소환

- 1932년 12월 김한 체포 - 김단야가 1929년 조선에서 활동할 때 김한은 ‘김단야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 - 모두 체포되었으나 김한만 체포되지 않고 소련으로 망명
- 1934년 모스크바 귀환 직후 김한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김단야는 김한이 밀정이라고 확신
- “김한이 계폐우에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나와 그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야기하였다. 특히 최성우나 조훈 같은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내가 직접 그 문제를 계폐우에 문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모스크바 한인 혁명가들의 양대 기관

-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과(조선학부)

- 1929년 김단야와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던 김정하가 1930년 가을 모스크바에 귀환한 이후 공산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1931년부터 조선과장으로 일함
- 1933년 2월 김정하가 해임되면서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에서 파견한 코펠니코프가 임시로 과장 직무 수행.
- 1934년 1월 모스크바로 귀환한 김단야가 2월에 과장으로 임명.

- 〈레닌주의〉, 〈조선 문제〉 등 강의
- 평가 - 박응익(한철일, 1913년 조선 출생, 노동자, 김용범에 의해 모스크바행, 1935-36년 공산대학 재학)
 - (1938년) “김단야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능하며, 그는 좋은 동무이다.”
 - (1939년) “김단야는 학교 조선반 책임자를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산당원인데, 조선의 “3.1”운동에 참가한 이후 공산당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표면적인 말과 행동이 모두 충실한 공산당원이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그 또한 당시에는 동지와 지도자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를 저희 학교 내 학습 때 만나게 되었고, 1936년 8월 헤어졌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그에 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1936년 8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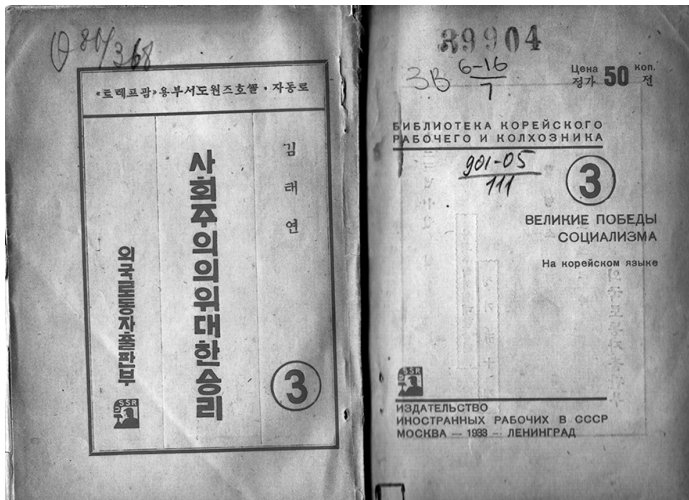


동방노력자공산대학

● 소련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선과

- 1931년 가을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안에 조선과 조직 : 원래 조선과는 중앙출판부에 속해 있었음
- 부서장 겸 조선어 정치편집인 : 김정하
- 1935년 4월 이상희(1933년 2월 2일 체포), 장진원(1933년 1월 21일 체포), 김영만(1933년 11월 28일 체포), 김규열(1933년 11월 27일 체포)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김정하 해임
- 1935년 10월 이종우가 과장에 임명되어 1937년까지 근무. 1937년 11월 26일 이

- 중우가 체포되면서 과장에서 해임
- 1937년 4월 22일까지 조선과의 직원 중 총 6명이 “인민의 적”으로서 소비에트 당국에 체포”(박진순). 이후 계속 체포
- 이종우 해임 이후 김단야가 과장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 김단야와 함께 모스크바로 귀환한 주세죽은 1934년 7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마치고 곧바로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선과 교정원으로 근무
- cf.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조선문제 담당자 : 최성우
- 1930년대 모스크바 한인 혁명가들 중 최고 지위를 차지한 3인 : 최성우, 김정하, 김단야



한인 혁명가 숙청의 시작

- 김한의 체포(1932. 12. 26)
 - 1920년대에도 숙청은 있었음. 이피득(스베르들로프스크 한인동맹 위원장, 1926년 10월 스파이 혐의로 체포, 징역 5년형+북방변경 추방 3년형), 이영선(전연방 공산당 연해현위원회 조선분과장, 1927년 3월 스파이 혐의로 체포, 9월 총살)
 - 1928년 농업집단화와 함께 진행된 쿨락 탄압. 국민의회파의 숙청으로 이어짐
 - 1930년 4월 김한의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김단야 그룹의 와해 사실을 코민테른에 보고하기 위함. 4월 말 김단야에게 보고. 김단야는 김한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코민테른에 제출
 - 1934년 7월 김한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 그해 12월 26일 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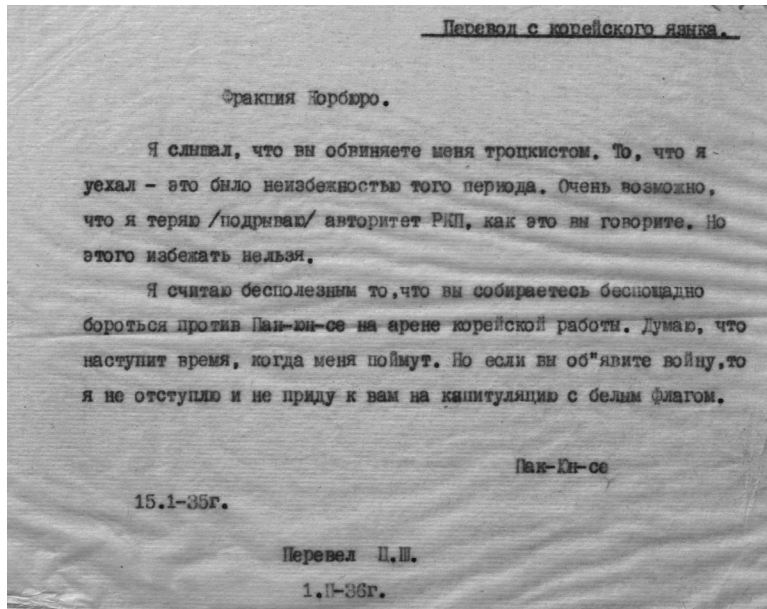
- 2개월여에 걸친 심문. 옛 동지들의 진술 → “김한은 조선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밀정으로 유명했던 자입니다.”(이성태)
- 1933년 3월 20일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형법 제5-6조에 따라 교정 노동수용소 10년 징역형 선고
- 김한 숙청의 의미 :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 김한은 끝까지 ‘일제 밀정’을 인정하지 않음 → 단순히 자신의 생명과 명예만 걸린 일이 아님
 - 김한의 숙청 이후 모스크바와 연해주에서 한인 혁명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

1차 변곡점

- 서울-상해파로 향한 화살(1933. 11)
 - 김한의 숙청 이후 한인 혁명가들에 대한 체포가 본격적으로 시작 - 1933년 2월 2일 이상희가 밀정 혐의로 체포
 - 12월당(서상파) 코민테른 파견 대표였던 김규열(12월 27일), 옛 서울파인 윤자영과 김영만(이상 12월 28일)이 차례로 체포
 - 이듬해인 김규열과 김영만은 총살형, 윤자영은 징역 5년형(1937년 다시 체포되어 총살형)
 - 서울-상해파 숙청은 당시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선과 책임자인 김정하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보임
 - 이상희의 조선 파견, 김영만과 김규열의 외국인노동자출판부 근무는 모두 김정하의 추천으로 이루어짐
 - “김정하는 “상해”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며 현재 모스크바에서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최근에 김정하의 활동을 분석해보면, 그가 “상해파” 세력을 결집 시키고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분파 노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부를 장악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1932년 12월 20일 <김정하에 대하여>)
 - “김정하 동무의 ‘비밀 누설’에 대한 동무의 물음에 대하여 …… 이 아래 쓰는 것은 천민(윤자영) 동무를 통하여 김정하 동무의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대강 적습니다.”(김춘성(이성태), 1933년 2월 25일)

- 김정하는 1933년 6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에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 선과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
- 결국 1935년 4월 해임. 사유는 이상희, 장진원, 김영만, 김규열 4명의 과거를 확 인하지 않고 경솔히 추천했다는 것
- 위 <김정하에 대하여>(1932년 12월 22일) 에서 상해파로 지목된 인물들 장진 원, 김원, 박밀양, 현일구, 김 아파나시, 김미하일, 왕성민, 장도정, 이관, 김영만, 김규열, 김철상, 주종건
 - 장진원 : 1933년 1월 21일 체포(모스크바), 징역 5년형
 - 이관(김순모) : 1933년 8월 28일 체포(모스크바), 징역 10년형
 - 주종건 : 1935년 4월 10일 체포(모스크바), 심리 중이던 그해 12월 22일 형무 소에서 사망
 - 박밀양(박윤해) : 1935년 6월 10일 체포(마가단주), 징역 10년형 - 1937년 11 월 다시 체포되어 총살형
 - 장도정 : 1935년 11월 17일 체포(원동변강 부존니), 징역 5년형 - 1939년 다 시 체포되어 징역 8년형 - 1941년 사망
 - 김 아파나시 : 1936년 1월 24일 체포(원동변강 포시에트), 징역 3년형 - 1937 년 9월 다시 체포되어 총살형
 - 김원 : 1936년 2월 3일 체포(하바롭스크주 콥소몰스크-나-아무레), 징역 3년형
 - 김 미하일 : 1937년 4월 29일 체포(원동변강 오렌부르크), 총살형
 - 현일구 : 1937년 9월 22일 체포(원동변강 우수리스크주), 총살형
 - 김철상 : 1937년 11월 26일 체포(모스크바), 총살형
- 서울-상해파 숙청(1933년 11월)의 의미
 - 한인 혁명가들에 대한 숙청이 본격적으로 시작 → 모스크바에서 시작하여 점차 지 방으로 퍼져나가게 됨
 - 김규열과 김영만에게는 ‘일제 밀정’ 혐의와 더불어 ‘파벌투쟁의 수괴’라는 죄목이 덧붙여짐
 - 한국 사회주의 운동 초기부터 존재했던 분파투쟁은 이제 ‘무원칙한 파벌투쟁’이 되었고, 이는 혁명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반혁명 책동’으로, 나아가 ‘일제 밀정의 행위’와 동의어가 되어갔다.
 - ‘파벌주의자 = 반혁명자=일제밀정’ 공식화
- 파벌주의자로 몰리는 한인 혁명가들

- 공격은 ‘엠엘파’로 이어짐
- 1935년 9월 19일 양명(이강) 체포, “조선공산당 내 반당적 분파행위에 가담한 죄”로 징역 8년형 선고
- ‘상해파’, ‘이르쿠티안(이르쿠츠크파)’, ‘화요파’, ‘엠엘파’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숙청 확대
- 심지어 “반혁명적 민족주의 단체 ‘코르뷰로’”라는 용어까지



코르뷰로 분파

여러분이 나를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비판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떠났던 것은 그 시기에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러시아공산당의 권위를 잃고(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조선의 사업 무대에서 박윤세에 맞서 가차 없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전쟁을 선포한다면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백기를 들고 여러분에게 투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1935년 1월 15일, 박윤세

1936년 2월 1일 최성우가 번역함.

2차 변곡점

• ‘대숙청’의 시작

- 1934년 12월 1일 스탈린의 심복에서 정적으로 성장해가던 레닌그라드 당서기 세

르게이 키로프가 암살당하는 사건 발생

-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12월 1일자 법'이라고 불리는 '결정' 채택. 이전까지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숙청이 본격화
- 1936년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 처형을 고비로 '대숙청'이 소련 전역을 뒤덮음
- 일부 학자들은 1937-38년 진행된 숙청을 '스탈린 대테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 1934년 제17차 당대회 대표 1,961명 중 1,108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처형. 1939년 제18차 당대회에 대표로 참가한 사람은 37명



주목할만한 해 - 1937년

- 최성우 체포(1937년 8월 26일)
 - 최성우는 '엠엘파'의 수장으로 줄곧 의심을 받아옴.
 - 1934년 말 정치적 위기를 맞았으나 이강(양명) 등을 비판하며 1936년 복권
 - 결국 1937년 8월 1일 전연방볼셰비키공산당에서 제명 “어찌다 당에 들어온 자로, 또 당의 신뢰를 살 수 없는 자”
 - 8월 15일에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비서국에서 해임 - 8월 26일 체포 - 11월 28일 총살형
 -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남을 중상하고 죄를 돌려씌우려는 최성우 동무“(이성태, 1933)
- 김정하 체포(1937년 8월 28일)
 - 김정하는 '상해파'의 수장으로 1935년 4월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선과 과장에서 해임
 - 5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당위원회는 김정하를 당조직에서 제명 - 6월 26일 지역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해임된 이후에도 출판부에서 번역 임무에 종사 → 조선과 지도부가 비난받는 계기 (박진순)
 - 결국 1937년 8월 28일 체포되어 이듬해인 1938년 1월 18일 처형

- “김정하 동무는 일상 말이나 암시에서나 자기가 코민테른과 프로핀테른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며”(이성태, 1933)

● **이성태(김춘성) 체포(1937년 10월 29일)**

-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졸업 후, 1933년 12월부터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선과에서 근무
- 모스크바 한인 혁명가들 사이의 비난과 고발의 핵심 인물
 - 최성우와 함께 양명을 변절자로 고발. 1935년
 - 조선에 파견된 서순민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 송정애와 주세죽 등에게 누설. 1937년 6월
 - “나는 조훈에게 당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한은 모스크바에서 체포되는 순간까지 조훈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37년 7월 25일
 - 박 니키포르(박민영) 비난 청원서. 1937년 9월 28일
 - 그리고 김단야를 비난하는 신고서. 1937년 9월 28일 - 9개 항목
 - 나는 소련에 오래 거주한 사람으로 조선 혁명운동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나, 그러함에도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스크바에서 조선인 동무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기도 하고 이미 고향인 조선에서 얻어지기도 했던 (전연방볼셰비키공산당원이자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참가자로서 현재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김단야에 관한 정보를 비밀부에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신이 청원서를 올려 비난했던 조훈과 같은 날인 1937년 10월 29일 체포. 12월 29일 처형

● **조훈 체포(1937년 10월 29일)**

- 김정하가 해임된 이후 이종우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선과에서 책임있는 직위와 활동
- 이성태의 비난 청원서 이후 외국인노동자출판부에서 해임
- 10월 3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에 재심을 요청하며, 조선이나 만주의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청원
- 그러나 10월 29일 체포되어 1938년 1월 8일 처형

● **이종우 체포(1937년 11월 26일)**

- 1937년 4월 22일 박진순의 비난 - 당위원회에서 근거없는 것으로 종결
 - “조선과의 지도부(이종우, 조훈)는 직원을 정치적,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족

- 그러나 11월 26일 체포되어 1938년 2월 13일 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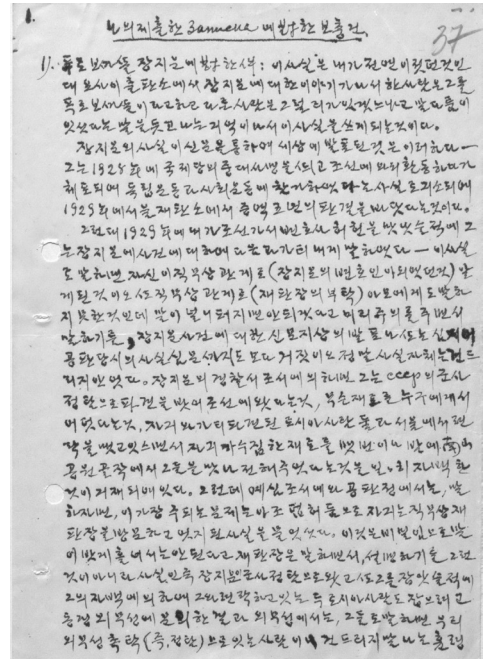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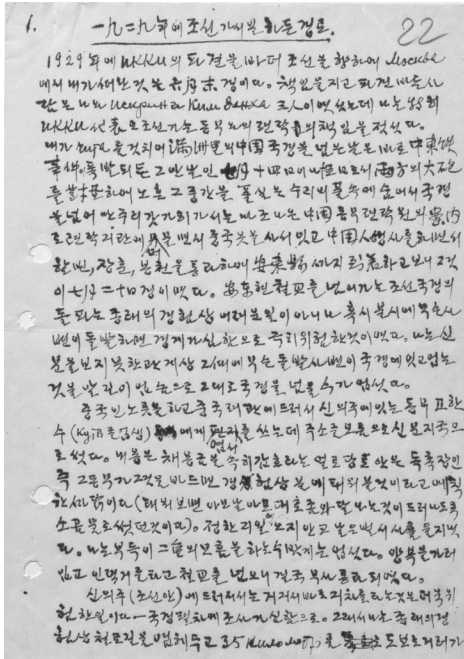
[illegible][illegible]

- 숙청의 그물이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1937년 2월 7일 〈이력서〉, 2월 23일 〈1929년에 조선 가서 일하던 경로〉, 3월 16일 〈나의 제출한 Записка

- 결국, 1937년 12월 2일 체포되어, 1938년 2월 13일 선고 후 처형
- 부인 주세죽은 '사회적 위험분자'로 체포되었으나 그의 처형 이후인 3월 15일 석방, 그러나 5월 22일 카자흐스탄으로 5년 유형이 선고

● 마지막으로 박진순 체포

- 1937년 12월 15일 체포, 1938년 3월 19일 선고 후 처형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1

● 비난 1 - 김단야의 출신성분

- “김단야가 비록 자기 부모가 농민인 것처럼 단언하고 있으나, 그는 지주층 출신입니다. 그의 부모가 거두는 연소득이 300곡(斛), 즉 쌀 2,000푸드[=32,760kg]가 넘습니다.”

● 김단야의 반박

- “나는 1901년 1월 16일 남부 조선의 중농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한의사였지만 1910년 한국과 일본이 병합된 후 자격을 상실하고 농민으로 남았다. ……

1917년 1월에 일본 도쿄로 갔다. …… 동년 8월 나는 부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부친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땅 조각을 학비 삼아 내게 주기로 했다.(그때 부친에게는 1정보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는 1 데샤티나[=약 10,926㎡]보다 작다.)”(1937년 2월 7일 이력서)

• 의견

- 이 문제는 모스크바 귀환 직후부터 김단야에게 줄곧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10년 이상을 혁명운동에 종사해 온 사람에게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은 단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비난은 많은 혁명가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좋은 소재였다. 조훈 역시 비슷한 비난을 받아왔다.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2

• 비난 2 - 3.1운동과 비밀결사

- “조선의 1919년 3월 봉기 후에 김단야 역시 <반도의 목탁>이라는 이름의 작은 지하신문을 발행하였던 서울의 한 청년학생 지하서클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때 김단야의 나이가 열아홉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자기 아들의 “장난질”을 알고는 서울에 올라와 김단야에게 그 서클과 관계를 끊고 일본 경찰에 가서 자수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부친의 압박에 따라 김단야는 자기 부친 앞에서 진솔하게 참회하였습니다. 김단야의 부친은 그 지하서클 멤버들의 이름을 넘겨주었습니다. 경찰은 김단야를 훈방하였고, 그는 부친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단야의 부친이 폭로한 지하서클 멤버들(이춘봉 등)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 김단야의 반박

- “3월 1일 후에 나는 학교 동무들과 함께 <반도의 목탁>이라는 이름의 지하인쇄물을 만들었다. 3월 중순에 고향 쪽으로 내려가 시위를 두 곳에서 성공적으로 조직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징역 3개월 대신에 태형 90대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가 판사의 말로는 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3일에 걸쳐 매 90대를 맞고 난 후 석방되었다. 매를 맞아 얻은 신체적 질환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무들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서울로 향했다. 지하인쇄물 <반도의 목탁>은 이미 오래 전에 차압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척단>이라는 이름의 다른 지하단체를 발견하였고, 거기서 2개의 남도(南道)를 담당하는

선동·선전원으로 일하였다. 나는 지방의 지하단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공표하기 위해 쓴 선언서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부자들로부터 지금을 모으고, 젊은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조선인 의병들이 설립한 만주의 군사학교로 보냈다. 12월에 김천의 한 지하단체 일원들이 모두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나는 외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1937년 2월 7일 이력서)

- 의견

- 김단야가 3.1운동에 참가해 태형 90대를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이 된다. 태형 90대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다. 훈방이라고 할 수 없다. 비밀결사 문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어떻게 말하기 힘들다.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3

- 비난 3 - 1922년 체포 문제

- “1922년 말 아니면 1923년 초에 김단야가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다시 몇 개월 징역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동무들은 그런 사건으로 몇 년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 역시 조선인 동무들에게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 김단야의 반박

- “1922년 3월 나는 국제공청 집행위원회 원동국에 의해 고려공청 중앙총국 국원으로 임명되어 조선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1922년 4월 나는 우리 중앙국원 2명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조선의 계급투쟁사에 첫 번째 투쟁 사례로 기록된다. 우리는 모두 1년 10개월을 감옥에 있었다. 형기를 다 채우고 우리는 1924년 1월에 석방되었다.”(1937년 2월 7일 이력서)

- 의견

- 김단야는 1922년 박현영, 임원근과 함께 국내로 잠입하다 안동과 신의주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24년 만기 출옥하여 서울로 돌아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4

- 비난 4 - 1925년 탈출과 김찬 문제

- “1925년 말 아니면 1926년 초에 김단야는 서울에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김단야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이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중앙위원들이 거의 다 체포되었습니다. 김단야를 포함하여 겨우 두세 명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단야와 함께 밀정 한 패, 즉 김찬과 박철환(이 자가 조봉암입니다.)이 체포를 피해 도주하였습니다. 전(前) 일본 강화도 경찰서 고원(雇員)이었던 박철환 뿐만이 아니라, 김찬 역시 수년에 걸쳐 밀정 노릇을 하였다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찬의 밀정 활동에 대한 기사가 1933년 6월 25일자 조선 신문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찬은 조선당 중앙의 연락과 운반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었고, 밀정 김찬의 도움으로 조선에서 출국한 김단야는 의심의 여지없이 일본 경찰에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김단야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김단야는 밀정 김찬의 가장 가까운 동무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례는 김단야와 일본 경찰과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금 증언합니다.”

● 김단야의 반박

- “1925년 11월 말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청의 중앙위원들 대다수가 체포되면서 나는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알려진 얼굴로는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12월 초에 나는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나는 조선의 당과 관계를 복원하였고, 상하이 소재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원동국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당의 중앙기관지 “화화(火花)”을 만들어 책임편집자로 일하였다.”(1937년 2월 7일 이력서)
- “김찬 : 이 자는 내가 폭로한 것은 아니다. 이 자는 1931년에 일본제국주의 법정에서 정탐이라는 것이 폭로되었다. 이 자는 나와 같이 당 중앙간부의 위원으로 있던 자로서 그가 정탐인 것은 나는 몰랐으나 할 수 없는 당파꾼임을 안 후 1926년부터 단절 관계하였고, 또 1931년에 그가 정탐인 것을 기관지 <콤무니스트>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허일, 안광천 등도 밀정이라는 것을 동 잡지에 폭로하였다.”(1937년 2월 23일 <1929년에 조선 가서 일하던 경로>)

● 의견

- <동아일보> 1933년 6월 25일자에 김찬이 밀정이라는 기사는 없음. <콤무니스트>는 확인 필요. 체포되지 않고 탈출한 혁명가들을 밀정으로 몰아대는 전형적인 수법. 결국 이성태 자신도 이 메커니즘에 의해 숙청됨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5

● 비난 5 - 박헌영 문제

- “김단야는 중앙위원들 중 으뜸인 박헌영이 1935년에 자백을 하고 당의 비밀을 볼 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분파적 이해관계로 코민테른에 박헌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박헌영이라는 자는 일본 경찰에 제공한 봉 사의 대가로 법정에 가기 전에 “질병”을 구실로 석방되었습니다. 박헌영은 친일 가 족 출신입니다. 그의 부친과 친형은 조선에서 유명한 친일 단체인 “일진회”의 회원 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편까지 피우는) 박헌영의 형은 지금까지 일본 첩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영은 일본 경찰에 가까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걸 아마 상하 이에서 마지막으로 체포되어 조선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박헌영이 일반 당원들에 비해 더 가벼운 형벌을 선고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박헌영이 당 중앙의 지도위원이 라는 사실을 법원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 다. 그의 지도하에 활동했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6~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리고, 박헌영의 평판을 해치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김단야는 분파주의와 가족주의적 사고에 따라 역시 박헌영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 김단야의 반박

- “이정(박헌영) 동무가 상하이에 도착한 후 우리는 조선에서 잡지를 발행하기로 결 정하였다. 그곳으로 잡지 사본을 보내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전령을 파견하였고, 제4호가 서울에서 발간되었다. 나중에 우리 조직이 부분적으로 와해되었고, 국경 에 있던 우리 연락책이 밀정으로 밝혀졌다. 선원들을 통해 연락관계의 재건을 도 모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서, 선원들이 약 속된 만남의 장소에서 이정 동무를 일본 경찰의 손아귀에 넘겨주었고, 한꺼번에 조선에서의 사업이 붕괴되었다. 나는 연락을 위해 다시 한 동무를 조선에 보냈으 나, 그는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 남았다.”(1937년 2월 7일 이력서)

● 의견

- 박헌영이 상해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는 위 문서 외에 김단야가 코민테른에 제 출했다는 ‘박헌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 다만 박헌영은 징역 5년이 아닌 6년을 선고받았고, 1939년 9월 만기출옥한 뒤 지하로 들어가 경성콤 그룹을 조직해 혁명운동을 계속했다. 이런 박헌영마저 일제 밀정으로 몰아가는 이

상태의 비난은 옳지 않다. 또한 자신 대신 체포되어 복역하고 있는 박헌영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김단야로서는 박헌영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6

• 비난 6 - 김한 문제

- “김한은 조선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밀정으로 유명했던 자입니다. (김한은 1932년 모스크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김한은 1919년부터 그가 체포될 때까지, 즉 1932년까지 김단야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친구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단야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파견에 따른) 자신의 마지막 조선 여행 때 김한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이미 밀정으로 알려진 김한은 조선에서 (김단야의 아내인) 고명자와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고명자는 일본 경찰에 일련의 공산주의 단체를 내주었습니다. 김단야는 김한이 소련에 오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자신이 잠시 일하기도 했던 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에 그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즉 김한은 모스크바로 왔고, 엔카베데[내무인민위원부]에 체포되었습니다.”

• 김단야의 반박

- “김한이 왜 나를 잡아가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나의 18년 혁명 활동에 흑점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만족할만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한에게도, 그를 지도한 일본 경찰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상, 남은 유일한 방도는 이 문제에 대한 김한의 심문 조서를 보는 것이다. 심지어 김한의 진술에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과연 내가 이 흑점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나의 실수는 김한이 밀정임을 몰랐다는 데 있다. 그러나 김한이 경찰에 나를 잡아가게 하지 않은 것은 나의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밀정이 나를 속였다고 누군가 내게 지적한다면, 나는 수천 번 머리를 숙여 내게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지만 김한이 나를 경찰에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나는 나의 이력서에 흑점에 관한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밀정에게 한 번도 속은 적이 없는 불세비키가 있다는 데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론에서 그럴 뿐 현실에서 그런 불세비키는 거의 없을 것이다.”(1937년 2월 23일 <1929년에 조선 가서 일하던 경로>))

- 의견

- 김한 문제는 김단야로서도 해결하기 힘든 숙제였다. 위 〈경로〉에서 김단야는 김한과의 관계를 매우 장황하게 서술한다. 모스크바 귀환 이후 김단야는 김한이 밀정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한이 이미 밀정으로 확정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을 수는 없었다. 결국 김단야 숙청에 스모킹 건은 김한 문제였다. → 멋진 그림(엔카베데 입장에서)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7

- 비난 7 - 조이환 문제

- “친일파 양반의 아들인 조이환은 자신의 사회적 출신성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김단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밖에, 조리환은 1925년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신의주의 일본 경찰과 검찰 관리들을 위해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체포된 후에 당의 비밀을 모두 일본 경찰에 넘겨주었고, 그 덕분에 그는 “질병을 이유로” 법원에서 풀려났습니다. 조리환의 친형은 지금까지 경성부의 고위 관리입니다. 김단야는 그에 관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 예전에 조리환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조리환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그는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망명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김단야는 분파주의적 생각으로 조리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단야의 반박

- 이 문제에 대해 김단야의 반박은 찾을 수 없음

- 의견

- 이성태는 김단야와 친밀한 조이환을 일제 밀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날 박 니키포르(박민영)을 비난하기 위해 쓴 청원서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조이환이 입증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무슨 해괴한...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8

- 비난 8 - 출판물에 담긴 정치적 과오

- “김단야는 최성우, 조훈 등과 함께 『소련 헌법안』의 출간에 있어 주요 상담역 중의 하나인데, 그 책에는 극히 조야한 정치적 과오들이 담겨 있습니다.”

- 김단야의 반박

- 이 문제에 대해 김단야의 반박은 찾을 수 없음

- 의견

- 외국인노동자출판부 조선과는 1936년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 헌법(근본법) 초안>을 번역해 출판하는데 이 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진순 역시 이 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다. → 두 책 모두 최고의 번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전체적인 문장, 심지어 단락의 누락을 발견하였습니다(형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당 및 정치적 성격의 다수의 심한 왜곡이 있어 반소련 선전에 가깝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능력 밖이다.

김단야의 혐의와 반박 9

- 비난 9 - 김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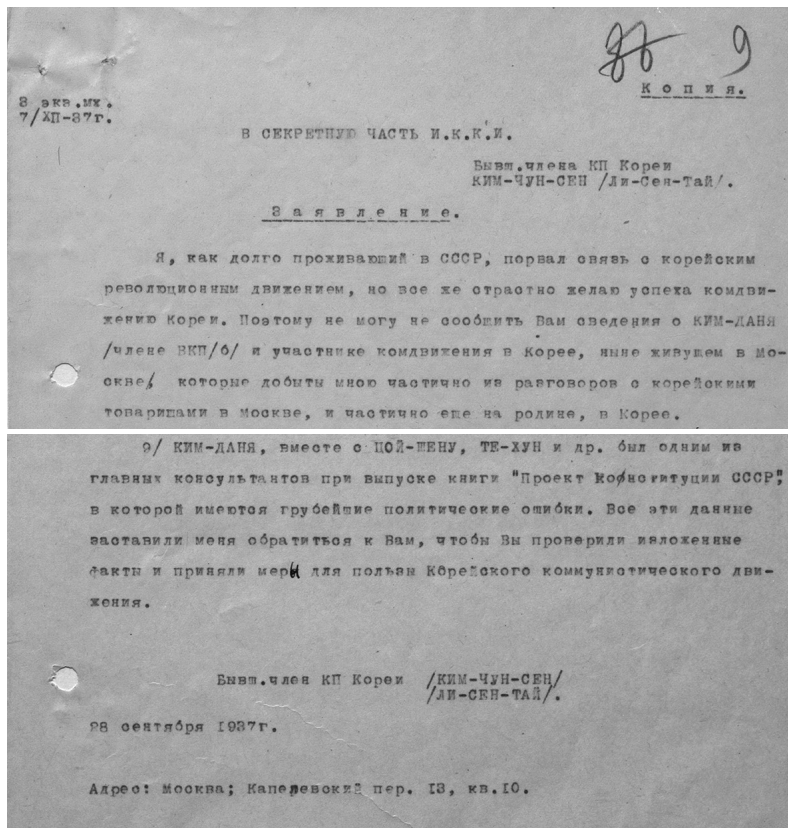
- “김무(이 자가 민창식입니다.)는 김단야와 함께 조선의 한 공산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김무는 조선에서 위조 위임장을 가지고 프로핀테른 대회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이 도발행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김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적시에 엔카베테에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김무는 모스크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단야는 지금까지도 분파주의적 생각에서 김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 김단야의 반박

- 이 문제에 대해 김단야의 반박은 찾을 수 없음

- 의견

- 인쇄 직공 출신으로 1925년에 고려공청, 1926년에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민창식은 6.10만세운동 이후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옥 후 소련으로 가서 1931년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해 1933년 졸업했다. 이성태 자신과 같은 시기에 공산대학을 다녔고, 이 청원서를 쓸 당시에는 <Искра Революции(혁명의 불꽃)>지에서 조선어와 일본어 활자 식자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제 밀정으로 몰고 있다. 민창식은 1938년 1월 11일 체포되어 4월 11일 처형되었다.



김단야 숙청의 역사적 의미

●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한인 혁명가 숙청의 완결, 그리고...

- 1932년 12월 김한이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스크바 거주 한인 혁명가들에 대한 숙청은 1937년 12월 김단야가 체포되면서 대체로 마무리된다.
- 모스크바 한인 혁명가들 중 '트로이카'를 이루고 있던 최성우, 김정하, 김단야가 차례로 숙청되면서 모스크바는 "한국 사회주의운동의 배후지, 지원처"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 한인 혁명가들의 숙청이 원동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의 '한인 강제이주' 시기와 맞물리면서 소련의 한인들, 즉 고려인들은 자신들을 지도하고 보호해 줄 방어막을 상실하게 되었다.
- 김단야 숙청 이후 모스크바에 남은 일부 한인 혁명가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혁명가들 역시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일부는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 김만점의 예

- 더욱 개탄스러운 부분은 이 과정에서 완성된 “**파벌주의자 → 반혁명가 → 일제 밀정**”이라는 숙청의 프로세스이다.
-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싸워왔던 대상인 일본제국주의의 ‘밀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 슬픈 혁명. 혁명의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파에게 숙청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어찌면 혁명가들이 짊어져야 할 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함께 맞서 싸우던 대상의 밀정”이기 때문이라고 우긴다면 참 슬픈 일이다.
- **스탈린의 한인 혁명가 숙청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
 -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숙청으로 정치적 생명 뿐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까지 빼앗는 일은 그 자체가 분노를 야기한다.
 - 하지만 숙청 그 자체보다 더 울분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은 ‘**숙청의 방식**’이다.
 - 스탈린 정권은 정치적 반대파 숙청을 위해 동지들 사이의 ‘밀고’를 사용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밀고’는 ‘무고’였다.
 - 의심과 추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무고’를 이겨낼 수 있었던 혁명가들은 많지 않았다.
 - 모스크바의 한인 혁명가 숙청에도 이러한 ‘**숙청의 방식**’이 도입되었다.
 - 많은 혁명가들이 예전에 반대 분파에 속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같은 분파에 속했던 동지들로부터도 ‘무고’를 당했다. → 여기에서 가장 활약했던 인물이 이성태(김춘성)였지만, 사실은 다른 혁명가들도 이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 → 코민테른의 고위 간부였던 최성우는 ‘한인 혁명가 숙청’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이런 상황에서 개별 혁명가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언제 자신에게 숙청의 칼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동지들에 대한 변호 자체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숙청된 동지들이 ‘반혁명가였음을, 일제 밀정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 아직까지는 김단야가 그 대열에 동참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김단야는 숙청당했다.